

LA시, 노숙자 주거 해결 ‘비상사태’ 선포



▲ 노숙자 텐트가 줄지어 있는 LA 스키드 로우 지역 거리.
사진=연합뉴스

케런 배스(69) 신임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노숙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 11일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LA에는 4만 명이 길거리에 서 거주하고 있다.”면서 “노숙자들의 주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임대료 때문에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거나 주거 취약층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의 도시가 부끄러운 왕관을 썼다”고 지적했다. 배스 시장은 그러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택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항후 1년 내로 1만5천 명 노숙자를 우선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만들고 현재 LA 거리에 즐비한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노숙자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LA 소방당국이 처리하는 화재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하루 평균 24건이다. 도시 전체적으로 약 4만 명이 넘는 노숙자 인구의 약 절반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 3분의 1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하루에 평균 5명의 노숙자들이 사망한다.

배스 시장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여성 최초이자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LA 시장에 당선됐다.

바이든, 동성혼 인정 법안 서명 “평등을 향한 걸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동성혼 허용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한 뒤 “모두를 위한 평등과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라는 문제이지 그보다 복잡한 게 아니다.”라며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방해 없이 이를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이 법안은 앞서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까지 통과했다.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 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혼존중법’에 서명한 13일, 백악관 마당 인 사우스론에서 한 여성이 동성 연인의 불에 입을 맞추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호지’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무료 검사 부활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무료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주정부와 협의해 미국 전역에 1만5천 개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모든 가구에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4개씩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터넷 신청이 필요 한 자가 진단키트의 발송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 8억 달러를 들여 자가

진단키트 구매계약을 맺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6억 개의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했지만, 관련 예산이 소진함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 이를 중단했으며 코로나19에 무료 검사도 중단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 정부도 손을 놓고 지켜볼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연휴인 추수감사절이 지난 뒤 코로나19 확진자 가 크게 늘었다. 12월 첫째 주에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만9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낱말퍼즐 정답

¹ 망	아	² 지		³ 소	각	⁴ 장
⁵ 백	발	⁶ 방	⁷ 한	복		⁸ 점
의				달		
⁹ 종	착	¹⁰ 지		¹¹ 음	¹² 주	¹³ 알
군		¹⁴ 면	¹⁵ 목	¹⁶ 변	¹⁷ 두	리
		걸				바
¹⁸ 고	¹⁹ 바	이	²⁰ 어	²¹ 사	이	
막	바	지	귀	동	냥	

145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1					4		2	
	2	7						4
8			7				5	
	5	8	7					
	6			2		7		
3				9		4		
	9		3	1		6		5
				5	3	8		
	3			8				